UCS University 2

한국에 오게 된 동기가 제가 열다섯 살 때에요. 우리 아버님이 무역을 하셨어요. 중국에 대련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가죽 공장에서 우리 신우주에서 아버지가 소가죽 제품도 중국으로 가져가고 대련으로 물건을 가져가고 내려오고 이랬는데 아버님이 안 오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날 배가 파손돼서 아버지가 내려오시다가 군산에 도착했대요.

전라북도 군산 그 밑에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네. 아버님의 배가 그전에 배가 군산에 닿았잖아요. 그래서 그루루 내려가서 군산에서 중국 가는 건 빠르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연락 오기를 군산에 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님이 거기 계시니까 우리 하나하나 다 넘어왔잖아요.

전 38성 혼자 넘어왔다고. 그럼 그때가 몇 년도에요? 한국전쟁 전이에요 후에요? 전이죠. 해방 이후에 왕래했어요.

해방 이후에 왕래를 했어요. 안내원이셔서 안내원이 따라서 38성 건널때 안내원 50년의 유교라고 38성 막히면서 못 다닌거지. 그 전에는 당했지.

이분들도 미국 사람이나 마찬가지지. 저는 알아야 하는데 사실. 옛날에 다 까먹었고.

까먹었지. 생각 안하고 사니까. 한국을 안 까먹으면.

저도 지금 그리고 약간 연도 이런 게 옛날이니까 감이 잘 안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솔직히 너무 젊어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연세를 까먹고 아니 솔직히 뭐 나이 먹은 사람이 뭐 지금 얘기하겠어요.

외모가 95세 잡수신 할머니. 그게 아니라 그냥 약간 저희 시어머니 뻘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 시어머니 뻘이면 그때 내려오려면 당연히 38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유교 전에는 다 다니셨지. 그래서 그냥 아버님 배로.

그때문에 다 내려오게 됐지. 그럼 가족이 다 오셨겠네요. 그리고 그러면 오신 다음에 그냥 계속 남한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부산에. 아버지도? 부산에. 어머니가 거기 부산에서 식당을 해서.

그래서 유교 때도 식당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배고픈 시절이 없었다고. 왜냐하면 뭐 고기 중에 고기 골라 먹었지. 갈비 전문집으로 했으니까 군인들이 다 주셔서 먹고.

유교 때니까. 아버지 유교 때 총칼 들고 20살에. 아기들 20살에.

나는 아버지 그때 군대 시점만 얘기하시면 너무너무 훌륭하고 장해.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켜진 나라인데. 그러면 우리 오빠가 2살 위거든.

아버지하고 동갑이잖아요. 동갑인데 제가 18살 때야. 20살인데 납치당했잖아요.

독박죄로. 그때는 많이 끌고 갔잖아. 그렇게 가서 서식도 몰라요.

그때 독수고등학교 3학년 때니까. 알지? 한국의 독수고등학교. 20살이야.

20살이야. 내가 오빠가 그렇게 없어졌으니까. 독수고등학교에서 접수한 거예요? 독수고등학교는 동대문 을지로 6가.

동대문 9장심 앞에 있어. 중심가에. 고등학교 3학년 때. 4대군 안에 있는 학교야.

6개월 때 여자동선 둘 다 폭격에 없어지고. 20대 전에 셋이지 뭐. 뭔 얘기하느냐. 다 지나갔어요.

우리는 그런 지켜진 나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지. 그런 걸 모르고 살았잖아요. 우리 아들들은 다 잘 있죠.

아르헨티나에. 삼형제. 아들 삼형제가 아르헨티나에.

90순생이실 때 오셨잖아요. 둘째는 농장, 포도농장, 와인도 만들어내고. 굉장히 크지.

첫째는 닥터를. 또 며느리도 닥터야. 셋째는 재진개동으로 성공하고.

감사합니다. 검사님만 건강하시면 돼요. 어지러우시대요.

매일 그냥 전화로 만날 연락이 있어. 요새는 동영상으로 하니까. 맞아요.

페이스타임 하니까 좋죠. 멀리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옆에서 사는 것 같아요.

화면이 쉬어야 돼요. 아들 셋에 딸 하나. 따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결혼하고 손주들 다 아기 낳고. 외손주가 다 있고.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나고.

인생 사는 게 그냥 다 울퉁불퉁하지. 꼭 이렇게 평탄한 게 쉽지 않지. 우리 아버지는 산남매 한국에 있고.

아들 하나 여기 있고. 아들이 꾸려 놓은 자손들이 산남매가 저렇게 잘 돼가지고. 할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있고.

효도해. 진짜 착해. 할아버지 나하고 종씨야.

같은 성 한 성 한 번이야. 이씨? 이씨. 경주 이씨.

자기는 전주 이씨지? 전주 이씨. 성함을 안 여쭤봐. 성함이랑 생년월일.

10월 14일. 33. 10월 14일 33년.

김춘희. 진짜 희. 김춘희. 이형봉.

이형봉. 이름이 어렵지. 봉. 봉울이.

봉울이 할 때 봉. 복자 형자 봉자. 네. 네. 11월 25일 32년. 11월 25일 32년.

32년. 32. 32년이면 나보다 한 살이네.

그런데 오늘 밝혀지는 나이 차이가 한 살이네요. 한 살 차이야? 두 살 차이가 아니었어요. 내가 한 살 줄었어요.

31년생인데. 생일이 11월 25일이야 내가. 그러니까 군대 들어가면 신상명세서 쓴다고.

그런데 만으로 쓰라고야. 그래서 32년이 돼서.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워낙은. 하긴 저희 아빠도 48년생이신데. 호적에 49년생으로 돼있어.

우리 애들 아빠하고 이 집 친정아버지하고 동갑이거든. 친정아버지하고 우리 애들 아빠하고 연도가 같아. 그런데 우리도 49년생으로 돼있어.

그것까지 같아요. 그렇죠? 원래 집뒤인데 손뒤로 돼있어. 하여튼.

아무튼. 아니 여기에 오셨는데. 아니야.

아니야. 저희는 제가 뭐를 사실. 들고 왔어야.